

순창군 전지훈련단 유치 적극

2020년 동계시즌 전지훈련 대회개최 추진 내달 국가대표 정구 선수단 훈련 등 일정 잇따라

순창군이 스포츠대회 유치로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본 데 이어 전지훈련단 유치에도 뛰어들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팔덕다용도보조구장(야구장, 축구장) 완공에 따른 경기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동계시즌 야구, 정구 전지훈련단 유치와 대회 개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12월 2일부터 10일간 국가대표 정구 선수단이 순창에서 친의훈련을 실시하며, 2020년 1월 28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꿈나무 정구 선수 동계 합동훈련도 진행된다.

또한 내년도 1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43일간의 일정으로 유소년, 중학교 야구단 전지훈련 일정을 확정

지었다.

전지훈련이 끝난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제5회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7일간 제1회 순창군수배 전국중학교야구대회 등 전국규모의 야구대회를 연이어 개최해 전국 유소년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순창을 알릴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야구 외에도 정구와 테니스 종목에서도 각종 대회 유치를 확정했다. 동계시즌 전지훈련 중인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5일간 전국초등학교 테니스 스토브리그와 1월 9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전국중학교 테니스 스토브리그가 열린다.

또 1월 17일부터 1월 22일까지 6일간 제6회 전국유소년정구대회, 2월에는 6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 한국대학정구연맹전이 기다리고 있다.

군은 2020년 동계시즌 야구 전지훈련단 맞이하기 위해 편의시설 확충과 제설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고구마를 구워주고, 오뎅을 끓여주는 감성 마케팅도 펼치며 전방위적으로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해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국내의 경제여건 악화로 점차 힘들어지고 있는 관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지훈련 및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타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12월 2일부터 10일간 국가대표 정구 선수단이 순창에서 친의훈련을 실시하며, 2020년 1월 28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꿈나무 정구 선수 동계 합동훈련도 진행된다.

심민 임실군수, 주요 현안사업 '진두지휘'

치즈테마파크-옥정호-성수산-반려동물 명품 관광벨트 구축 가속화

심민 임실군수가 주요 핵심 및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임실군은 심민 군수 주재하에 11월 중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군정 주요 현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심민 군수는 25일 군정 종합상황실에서 국·실과원소 및 읍면장, 관련 팀장들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주요 핵심사업 추진상황 보고 받았다.

이어 2021년 국가예산확보 신규사업 발굴현황, 지방재정집행 추진상황,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상황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쟁점 사항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날 심민 군수는 임실치즈테마파크, 옥정호 권역 생태관광, 성수산 관광지 개발, 반려동물 거점 조성

등 군 대표 관광지와 임실을 행복누리원, 임실군 공공도서관 건립, 관촌체육문화센터 등 주민들의 여가와 복지를 책임질 각종 시설사업들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받고 올해 가시적인 목표달성과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박차를 가했다.

또한,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 및 보육행정,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군 현안 해결을 위한 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신규사업 발굴에 대해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부서 간 협업을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도 올해 출산 폐쇄기간 도래에 따른 이·불용 최소화화 위해 예산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연말 중앙 및 전북도가 실시하는 각종 대외

평가 및 시상, 정부합동평가 등 실적관리 및 선정에도 철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민 군수는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사업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과 "전 직원이 능동적인 자세와 적극행정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통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이번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쟁점사항에 대해 국·실과장 책임하에 현정행정을 강화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최근 남원시자원봉사센터가 힘들게 폐지를 주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3명의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리어카'를 전달했다.

남원시, '사랑의 리어카' 전달

폐지 좁은 어르신들 위해 하이트진로 전북본부서 후원

남원시는 최근 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배종철)가 힘들게 폐지를 주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3명의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리어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리어카' 프로젝트는 매일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맞춤형 리어카를 제작 보급하는 사업으로 리어카는 하이트진로 전북권역본부에서 후원했다.

이번에 전달된 '사랑의 리어카'는 일반 손수레보다 훨씬 가볍고 일체형 브레이크, 전조등, 경음기, 반사테이프 등 안전에 기반을 두

고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춰 제작되었으며, 야광 안전조끼,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자물쇠, 물병, 짐질팩, 목도리 등 안전용품과 생필품도 전달했다.

류흥성 총무과장은 "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남 자원봉사센터장은 "사랑의 리어카가 옮겨줄 어르신들의 재활용품 수집에 도움이 되고 안전하게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2020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0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순창읍 신남리 일원 무수마을 외 3개마을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농업·농촌에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며, 토양·용수·경관·생태 등 농업환경 분야별 개인 및 공동 활동과제 수행에 따른 활동비가 지급된다. 이와 관련 군은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관 주도형 사업을 탈피, 주민들이 스스로 토양·용수·경관·생태 등 다양한 환경개선 및 관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립·시행함으로써 환경보전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수마을 외 3개마을(대정·탄금·용내)은 인접한 4개의 마을이 하나의 하천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가에서 하천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깨끗한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순창읍 신남리 일류 T/니, 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 확대하고 있는 곳으로, 누룩정(쌈), 외가리 서식지, 당산나무 보호수 등 다양한 농업유산도 보유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현재 농촌은 고령화 되고 농업환경이 어려운 시점에서 주민들 스스로 농업환경, 농업유산, 생태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운동에 앞장선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점차 순창군 전 지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참미재배 농가 벤치마킹

남원시는 남원 브랜드 쌀 남원참미 재배농가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진지 견학에서 국립식량과학원, 해남 땅콩공사방법인, 순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방문해, 유망 쌀 품종과 논 타작물 재배방법, 브랜드쌀 생산·가공·유통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예찬 등 최근 육성된 밥쌀용 최고품종에 대한 특성과 인공기상실 등을 방문 다양한 최고벼 품종을 견학하고, 해남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 핵심기술(논 정리, 품종선택, 파종법 등)을 체험하였다.

이번 선진지 견학에 참여한 유국열 참미단지 연합회장은 "남원 참미도 지역실정에 맞게 차별화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며, 고품질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남원시 김영선 쌀 산업 담당은 "앞으로도 시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농업·농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학원위탁 프로그램 수강생 선발

임실보훈인재학당이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2020년도 상반기 학원위탁 프로그램 수강생 선발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보훈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정 학생과 보훈인재학당에 선발되지 못한 차 순위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 1인당 매월 15만원의 학원 위탁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도 상반기 선발인원은 관내 예비중학생 67명으로, 지원자격은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합격자는 오는 12월 17일 임실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선발된 수강생은 내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관내 임실?보습학원에서 수학, 영어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위탁 수업을 받는다.

한편, 보훈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 수강생 선발 공고 및 응시원서는 임실군 홈페이지(http://www.imsl.go.kr) 임실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보훈인재학당(☎063-643-95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